

삼장(천장·지지·인장) 지장보살이 상주하는 지장기도성지

도솔산 선운사



도솔산 선운사 전경

전북 고창 도솔산 북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선운사(주지 법만)는 김제의 금산사(金山寺)와 함께 전라북도의 2대 본사로서 오랜 역사와 빼어난 자연경관, 많은 성보문화재들을 지니고 있어 사시사철 참배하는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성지이다.

선운사를 둘러싼 도솔산 봉우리마다 모두 선(禪)을 닦는 형상이나 선자(禪者)들이 기거할 곳이다. 아침이면 상서로운 구름이 산 봉우리를 감싸고 저녁녘 상서로운 구름은 항상 산허리를 휘감으므로 선운산이요 선운사라 했다.

삼장지장보살을 봉안한 기도성지

선운사는 예로부터 삼장지장보살 신앙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지장지장보살을 봉안한 지장신앙의 성지로 일컬어져 왔다.

선운사 (금동 지장보살) · 도솔암 도솔천내원궁 (천장 지장보살) · 참담암 (인장 지장보살)에 각각 지장보살을 봉안하고 있어 본사와 산내암자에 지장 삼장(三藏)을 불상으로 모시고 있는 특별한 도량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초기까지의 중창불사가 왕실의 원찰(願刹)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왕(先王)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선운사에 지장 지장보살을 모시고 이어 두 산내암자에 각각 지장보살을 모시면서 이곳을 지장신앙의 중심지로 삼아 49재나 우란분절인 음력 7월 15일 백중을 기해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삼장지장도량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선운사를 창건한 김단선사가 양민들에게 소급급은 법을 일러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준데서 유래한 '은혜같은 소급(은은)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창건과 함께 지역민과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는 이타행의 실천도

량인 선운사가 지장성지로 일컬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대승불교의 제불보살중에서도 가장 원력이 큰 보살이 대원본존지장보살이다.

지장보살은 위신력과 자비, 지혜와 변제가 불가사의하고 모든 악업에서 해탈하게 하며 죽은 사람과 산 사람 모두를 이롭게 하는 보살로서 전생에 지어놓은 악업이 많아 과보를 받게 될 처지라도 지장보살의 구제원력에 귀의하여 해탈을 구하면 악도를 벗어날 수 있다. 또 모든 죄고(罪苦)에 빠진 모든 중생을 구원하기 전에는 자신의 성불을 미루겠다는 대원을 세우고, 천상에서 지옥에 이르는 육도(六道)의 중생을 낳음이 교화시켜 성불하도록 인도하는 대자대비(大慈大悲)의 보살이다.

지장보살을 육도중생을 성불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육지장보살이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육도전체를 삼계라 보고 그 삼계를 총괄하는 천장(天藏), 지지(地持), 인장(人藏)의 삼장지장신앙이 전개되어 왔다.

지장신앙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성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 반구사 고사편람(斑鳩寺 古事便覽)에 "반구사 동어전에 삼수승지장존립상이 안치되어 있는데 이 상은 백제에서 보내온 존상이다"는 기록과 신라의 경우 지장보살을 설주로 하는 "점찰선악업보경"이 확산된 예를 볼 때 이미 삼국시대부터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려 건국과 함께 창건된 10개의 사찰에도 지장사가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지장신앙이 발달해 있었다.

조선조에는 불교가 핍박받는 분위기 속에서도 시왕재의 설행 및 시왕도 조성의 예로 볼 때 민간에까지 널리 퍼져나갔다. 오히려 신앙적 정체성을 확고히 해 산문 중심으로 진행된 지장신앙은 의식집 출간으로 체계화되기에 이른다. 1827년 간행된 선운사 중흥조 백파공 선사님의 '자법귀감' 중 지장정현공의와 악예왕공문에는 지장보살과 도명존자 무득귀왕 명부시왕 및 권속들에 대한 엄정한 형식의 의식문이 만들어 지게 된다.



선운사 금동(지지)지장보살

지지 지장보살 (선운사 금동 지장보살 보물 279호)

선운사 지장보궁에 봉안되어 있는 조선 초기의 금동 지장보살좌상으로 삼장지장보살 중 지지(地持) 지장보살에 해당한다. 지지 지장보살은 지옥의 중생을 교화하는 보살이다. 지옥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옥에 들어가 죄자의 중생들을 교화 제도하는 것 외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와 자비를 비장(秘藏)한 보살이라는 뜻도 있다.

선운사 지장보살은 일제 강점기인 1936년 어느 여름에 일본인 2명과 우리나라 사람 1명이 공모하여 보살상을 훔쳐간 뒤, 거금을 받고 매매하여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는데 소장자의 꿈에 지장보살이 "나를 원래 있던 도솔산으로 보내달라"고 해 2년만인 1938년 11월 다시 도솔산 선운사로 돌아오게 된 이적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잃어버린 보살상을 다시 모시고 온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찍은 사진에도 사진에 대한 개요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당시 주지는 '이우운(李雨雲)'으로 기재되어 있다.

천장지장보살 (도솔암 도솔천 내원궁 지장보살 보물 280호)



도솔암 도솔천 내원궁



내원궁(천장) 지장보살

도솔암은 선운사 산내 암자 가운데 가장 높은곳에 자리잡고 있다. 선운사와 함께 백제 때 창건되었다고 전한다. 도솔암 서편의 마애불좌상(보물 1200호)와 함께 세계 유일의 마루 · 지장성지로 많은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솔암 도솔천내원궁에 봉안된 지장보살은 천장 지장보살로 상계교주(上界教主)로서 천상의 교주로 신앙되어 왔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장보살과 달리 지장전이 아닌 도솔천 내원궁에 봉안되어 있다.

도솔천 내원궁의 천장지장보살은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영험담을 전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1996년에는 대구의 한 여성불자가 여방암에 걸쳐 생사를 헤매다 기도정진중 완치되는 믿기 힘든 이적을 보이기도 했다. 이 불자는 도솔암에서의 기도정진을 통해 영험을 얻은 사람들과 함께 도솔회라는 신행조직을 만들었고 도솔회는 지금도 열심히 기도 정진에 매진하고 있다.

인장 지장보살 (참담암 지장보살 전북유형문화재 33호)

선운사 참담암은 산내 암자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본래 참담사 또는 대참사로 불렸던 지장참회도량의 거찰로 도솔암의 천장지장보살과 선운사의 금동지장보살 모두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었다고 한다.

곱들로 제작된 참담암 지장보살은 인제의 중생을 제도하는 인장지장보살이다. 지장보살을 설주로 하는 『점찰선악업보경』을 토대로 대규모 점찰법회가 성행하기도 했다.



참담암 (인장)지장보살

참담암의 지장보살은 한때 약사여래불로 오해받기도 했다. 참담암의 우물물은 신령스런 기운이 흐르고 있어 예전에는 문둥병도 고쳤다는 속신도 전해지고 기도 후 아픈 무릎을 고쳤다는 중언도 있어 이같은 오해를 불러 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렇듯 선운사의 삼장 지장보살은 수많은 영험담과 이적을 보여주고 있다.

지장보살의 본원력으로 가피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전해지고 있다.

선운사는 국내 유일의 삼장기도도량으로 일구어 놓은 역대 조사스님들의 불상봉안 정신과 지장보살님의 지옥중생 구제 원력을 구현하여 이 시대가 우리 불교계에 요구하는 기대와 부름 즉, 기도와 수행, 복지와 문화공동체를 이루겠다는 서원을 다지고 있다.

선운사 사부대중들은 이러한 뜻들이 모여져 지장기도 성지의 사격에 맞는 지장보살선양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해 지난 7월 지장보궁을 조성하였으며, 또한 금년 가을 제6회 선운문화제 기간에 지장신앙 세미나와, 지장신앙 특별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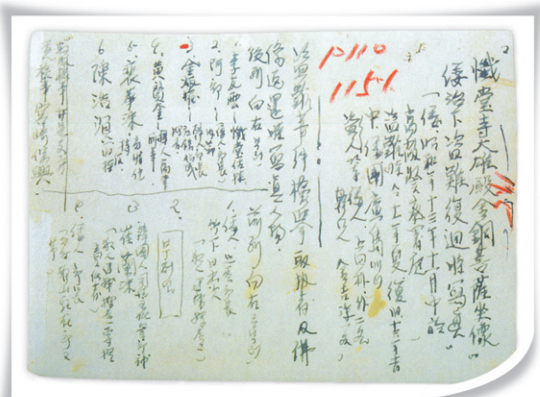
조동제 전북지사장



도솔암 선운사 찾아가는 길



지장보살 반환 사진



지장보살 반환 설명문



선운사 지장보궁



참담암 전경